

(설 화)

제 목 : 이완이 이대장 이야기
제 보 자 : 이 성 근 (남. 당 82 세)
주 소 : 구리시 동구동 15
조사일시 : 1997. 11. 27. 이성근 가

내 용

그때 저 엔날에 그 봉림대군직에 이완이 이대장이 그 낭반이 우리 십일 대조가 되는데요, 참 그분은 무변으루 대장 이에요 한참 근대 그 병자호란 난리 난지가 한이십년 됐스믄 한 십년만에 이낭반이 커가주구 그 중국에 웬슬 갓을라구 청나라 청나라 웬슬 갓을라구 그낭반이 무슬두 만이 배구 그 재주두 신선한태 뻗거던요, 그랬는데 임금한태 즐창 대장으루 있스면서 중국 치자구 그래니깐 그때에 중국가서 고상한이가 이저 최명길이 허구 이 송시열이 원두표꺼정 아주 임정업장군 꺼정 아주 혼났거던요, 그래가주구는 중국을 칠수가 읍서서 겁이 난다구 그래거던요 우리 조상님은 그까지것 내가 가믄 그까지것 칠십에 성이래두 석달이면 다 평전 해노쿠 항복을 가져 올테니 나한태 승낙만 해줍쇼 허구 임금한태두 안들어요 당채 그래서 그냥 열두번을 상설올리구 그래는데두 정 안듯구 그래서 할수읏시 군사를 풀어가주 그냥반 어디 시험을 보자구 그 대월에 다 죄 집중을시키구 무변을 집중시키구 이낭반더러 그럼 재주가 그랬레 니 칼들구있는 사람, 창들구 있는사람, 활두 디리 대구 쏘는 사람 있는데 뺨돌리 새났대 대월에다 그냥반은 간대다 두구 그럼 들어올 때 쯤해서 무변이 그냥 해쳐 버려라 재주가 있나 읍나 시험을 보자 대월안에 득 들어가니깐 그냥 칼을들구 양쪽에서 칼을 들구 그래두 힘떨이나 쓰구 무슬에 능한 사람이 치는데 뭐 깨떡읏거던요, 그래 뭐 한두패두 아니구 여러시 들댐벼 쳐 죽일려구 허는데 깨떡읏구 활을 쏘차가며 디리 쇄두 활두 안받으이관 그래 그 신은 으뎡해서 그몸에 칼이 붓질안쿠 활이 받질 안느냐 그래니깐 아이 제 몸에는 안받습니다, 그래니깐 내가 지금 때가 우리가 지금 청나라를 그만큼 고생을 만이 했는데 청나라 웬슬 갓을라구 그래는데 임금께서 그저 그저 명령만 내리시믄 내 지금 이대루 달쳐 나가서 치겠습니다, 그래니깐 승낙을 안해요 임금이 그럼 한 삼년만 더 있다가죽 무대에다 돈을 마가주구 칩시다, 그래는데 그걸 해 뵈허느냐구

말씀드려두 그래요 영 고만 못해구 그 봉림대군 임금이 병이들어서
죽었대유 그래구 그 그냥반이 그래 아까운 재주두 못해보구 청나라
웬수두 못잡퍼보구 고만 이분은 그저 그 정승만 하시구 돌아 가셨서
요 그예기예요 허--허-----